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23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420-2710 • 담당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 대표 공연단 선정,
국제적 인지도 높이는 인천시 시립무용단
- 한국 크로아티아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립무용단이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에서 주최하는 2022 주요외교계기 기념 문화행사 해외파견 국공립예술단체로 최종 선정돼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립무용단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외교 대표 단체로 선정된 쾌거를 거두며 국가 홍보사절로서 외교부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오는 7월 2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리신스키 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인천시립무용단은 창작과 전통을 오가며 한국 춤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태평성대’, ‘부채춤’ 등 대표적 전통무용 작품과 정갈한 남성춤

‘결(潔)’, 불교 의식무용에서 영감을 얻은 ‘사다라니’, 신명이 가득한 장구춤 ‘풍류가인’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무용 레퍼토리를 풀어내는 1부에 이어, 인천시립무용단의 창작 작품 <만찬 - 진, 오귀>의 일부분인 ‘무무(巫舞)’ 장면을 2부로 구성해 해외 관객에게 우리 춤의 다양한 매력을 전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특히 1부에서는 국악 라이브 반주와 어우러진 춤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립무용단 윤성주 예술감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다시 시작된 국가 교류의 장에서 한 명 한 명이 올림픽에 나서는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으로, 문화외교사절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인천의 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임>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사진

